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운영모형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Model of Continuing Education for Academic Librarians

황 옥 경(Ok-Gyung Hwang)*

오 세 훈(Se-Hoon Oh)**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바람직한 계속교육 행태를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61.4%가 1년에 1회 이상 평균 2.6건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서들이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은 단기 연수 혹은 강습의 유형이고 기간은 일주일 혹은 2-3일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시행되는 것을 선호하였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실제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 교육, 정보검색, 전자저널 및 라이선스, 도서관 기획 및 전략, 도서관 마케팅,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등의 순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inuing education model desired by the academic librarians in the present digit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ndertook a questionnaire survey of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61.4% of the librarians participated more than once(average 2.6 times)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last one year. The most preferred program type was one week or 2-3 days workshop. The theme of the program was regarde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activa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preferred theme of the program was user instruction, information retrieval, electronic licensing, planning and strategy, library marketing, virtual reference service etc.

키워드: 계속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대학도서관, 사서직, 전문직, 자기계발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cademic librarian, profession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hmirim@swu.ac.kr)

** 광운대학교 도서관 사서(atom@kw.ac.kr)

논문접수일자 : 2006년 5월 8일 논문심사일자 : 2006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6월 1일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의 지식정보사회는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정보의 생성과 신기술의 등장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한 부단한 자기 계발과 자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도서관 역시 언제나 새로운 지식정보와 정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을 추구해 가는 기관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계속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도서관은 이론과 실제의 상호보완을 요구하는 곳으로서 사서들은 계속교육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익히게 된다. 계속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 유지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질적 소양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사서직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 내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이용, 라이선스 계약, 기관학술정보저장소(institutional repository),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사서들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전문 교육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속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대학원, 교육대학원, 학회 및 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현행 계속교육 운영방식

및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 모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전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분야로 제한하여 실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도서관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직 사서들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형태는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질문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계속교육 모형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바람직한 계속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계속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 대학도서관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요구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모형을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서 김경대(1990)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에서 계속교육의 인지도 및 선호하는 교육방식, 교육과정 그리고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속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계속교육 모형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아(1994)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계속교육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 20개 공공도서관 사서 84명과 25개 대학도서관 사서 9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경영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반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서지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으로 원하는 교육 분야는 외국어와 정보·전산화 분야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실무자 교육 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다른 관공의 사서들에게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구 기관인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에게는 문헌정보학 이외의 주제 배경을 갖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방법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장단기 연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은정(1996)은 전국 72개 대학도서관의 참고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들이 참고 사서들만을 위한 업무별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

는 참고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참고 사서를 위한 일반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대규모 도서관에서 실시되도록 하되 업무별 교육은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사서교육원 등의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참고 사서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참고사서들에게 적합한 계속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준식과 박은정(1996)은 참고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방법, 교육내용, 교육 기관 등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대학도서관 참고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상을 파악한 뒤 참고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선경(1997)은 대학도서관 목록 사서들의 계속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장서수가 10만 권 이상이고, 매년 장서 증가율이 1만 권 이상인 88개 대학도서관의 목록 사서 8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으나 목록 사서들의 계속교육 참여 정도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행정 지원과 관리자의 이해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목록 사서들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최말희(2001)는 부산지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도서관 3곳에 74부, 사립대학교 도서관 5곳에 79부, 전체 8개 대학도서관에 154부의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들은 시대적인 변화요구에 따른 정보제공(36.5%)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의 습득(35.0%)을 위해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술정보조사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봉사와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계속교육 계획 수립이 제시되었다.

국외 연구로서 계속교육 형태와 관련하여 Parson(1988)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가장 빈번한 비공식 계속교육 활동은 독서이고 그 다음은 전문가 모임, 회의, 직장 내 직원 모임, 그리고 동료들과의 "bull session"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로서 Morgan(1996)은 현재와 미래의 대학도서관 사서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술은 대학교 직원들과의 신뢰성, 교수 및 학습, 정보기술 관련 기술, 관리 기술이라고 밝혔다.

미국도서관협회(Association for College & Research Libraries : ACRL)의 한 분과인 Science and Technology Section(STS)에 속하는 Continuing Education Committee(CEC)가 2003년도에 91명의 회원 사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수진과의 협력 관계 향상, 과학 분야의 정보활용 능력, 도서관 장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전자 자원의 영향, 주제별 참고자원, 프리젠테이션과 교수 기법, 전자 자원 수서 등의 순서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에 다시 "최고 관심 주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0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연구 및 교수에 있어서 교수진과의 협동 작업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오픈 액세스 저널, 장서개발을 위한 이용 통계, 평가와 이용자 조사, 디지털 기관 학술정보 저장소 개발, 국가과학도서관 구축의 노력, 연합 탐색, 질 높은 무료 온라인 데이터 발견, 과학 블로그, 리스트서브 등의 최신 정보 발견법, 인용 분석, 계량정보학, 인비저블 웹, 시맨틱 웹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의 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에 따라 사서들이 요구하는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내용도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4. 조사 결과

질문지 조사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 회 소속 회원교 112개교의 도서관에 재직 중인 관장, 관리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집된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통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5. 11. 1 ~ 12. 13까지 3주간이었다. 질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질문지 발송 10일 후, 미 응답자에게 응답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와 더불어 질문지를 다시 한 번 발송하였다. 506명의 질문지 대상자로부터 393부의 질문지를 회수함으로써 7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38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모두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난 1년간(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참여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관련 3개 문항
- ② 지난 1년간 참여한 계속교육에 대한 만족도 관련 6개 문항
- ③ 조직 내 계속교육 지원내용 관련 3개 문항
- ④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1개 문항
- ⑤ 바람직한 계속교육 운영 모형 관련 7개 문항
- ⑥ 응답자 신상조사 8개 문항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계속교육 참여율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서는 전체 386명의 응답자중 237명으로 61.4%의 비율을 보였다. 이선경(1997)의 연구에서 최근 1년간 대학도서관 목록사서들이 계속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48.6%로 제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참여율이 13%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계속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구분	빈도	%
있다	237	61.4
없다	149	38.6
합계	386	100.0

4.2 참여 프로그램 유형

지난 1년간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7명을 대상으로 참여했

던 계속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237명의 참여 프로그램 수가 모두 624건이므로 작년 한 해 1인당 평균 2.6건의 계속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한 계속교육의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협(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349명 55.9%),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85명 13.6%), 국내 도서관 및 타 기관 연수(64명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3개의 유형이 전체의 79.8%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도서관 직원의 계속교육 유형은 학(협)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샵,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 국내 도서관 및 타 기관 연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계속교육 참여 프로그램 유형

항 목	빈도	%
협(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	349	55.9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	85	13.6
도서관 및 타 기관 연수(국내)	64	10.3
소속 도서관의 제직교육 프로그램	53	8.5
타 전공학문분야 학위 취득과정	21	3.4
도서관 및 타 기관 연수(해외)	19	3.0
선입자로부터의 업무지도 및 교육	18	2.9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 취득과정	15	2.4
합 계	624	100.0

한편 참여 프로그램의 유형별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까지 5점 척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우만족 5점부터 매우불만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계산한 뒤 이를 응답자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평균 점수가 5에서 4.5이상이면 매우만족, 4.5미만 3.5이상이면 만족, 3.5미만 2.5이상이면 보통, 2.5미만 1.5이상

이면 다소불만, 1.5미만 1이상이면 매우불만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학위 취득 형태(3.938 점), 도서관 및 타기관 연수(해외)(3.895점),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3.586 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소 만족에 해당하는 평가이다. 이 외에도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3.586점), 기타(3.529점), 학(협)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의 형태 (3.508 점) 등에 대해 다소만족이라는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다. 가장 저조한 만족도를 보인 것은 선임자로부터의 업무 지도 및 교육(1.014점)으로서 이는 매우불만에 해당하는 평가이다.

4.3 참여 프로그램 주제

지난 1년간 사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사서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저작권법을 포함한 도서관 관련법(74건 9.8%), 도서관 정책(70건 9.3%), 도서관 기획 및 전략(51건 6.7%), 전자저널, 라이선스(50건 6.6%), 이용자교육(48건 6.3%), 도서관평가(45건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까지 5점 척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을 위해 9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의 신뢰도 계수는 0.8571로서 유의미한 신뢰도 계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라는 전체변수로 인정될 수 있다. 만족도 측정을 위해 매우만족 5점부터 매우불만 1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평균을 구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3) 참여 프로그램의 주제

항 목	응답 빈도	응답 %	응답자 %
도서관 관련법(저작권 등)	74	9.8	31.5
도서관정책	70	9.3	29.8
도서관 기획 및 전략	51	6.7	21.7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	50	6.6	21.3
이용자교육	48	6.3	20.4
도서관 평가(통계 등)	45	6.0	19.1
정보검색	44	5.8	18.7
도서관 마케팅	39	5.2	16.6
뉴미디어(전자자료 등)	35	4.6	14.9
IT기술및응용프로그램활용능력	32	4.2	13.6
기타	32	4.2	13.6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32	4.2	13.6
편목 (KORMARC)	28	3.7	11.9
외국어	24	3.2	10.2
분류 (KDC, DDC)	23	3.0	9.8
일반교양	20	2.6	8.5
장서개발과정	18	2.4	7.7
커뮤니케이션	17	2.2	7.2
대학 리포지토리	14	1.9	6.0
주제별 정보원 구축	13	1.7	5.5
자료보존	12	1.6	5.1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구축	9	1.2	3.8
장서평가	9	1.2	3.8
사서직이론, 역사, 원리, 윤리	8	1.1	3.4
색인 및 초록작성법	5	0.7	2.1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	4	0.5	1.7
합 계	756	100.0	321.7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의 전문성이 3.60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육 담당자의 자질이 3.48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교육의 연속성 및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는 각각 2.969점과 2.92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렇게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족도 비율을 보인 원인은 대다수의 계속교육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뢰도 조사 결과,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는 교재의 완성도 항목과 더불어 신

(표 4) 참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		매우불만		합계		평균 점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수	
내용의 전문성	9	4.0	132	58.4	73	32.3	10	4.4	2	0.9	226	814	3,602
교육 담당자의 자질	6	2.7	108	48.2	98	43.8	12	5.4	0	0.0	224	780	3,482
실무와의 연계성	10	4.3	103	44.8	85	37.0	29	12.6	3	1.3	230	778	3,383
교수 방법의 적절성	5	2.2	90	40.2	115	51.3	12	5.4	2	0.9	224	756	3,375
기 타	0	0.0	2	25.0	6	75.0	0	0.0	0	0.0	8	26	3,250
교육비	10	4.8	52	25.1	118	57.0	25	12.1	2	1.0	207	664	3,208
교재의 완성도	5	2.3	63	28.4	127	57.2	24	10.8	3	1.4	222	709	3,194
교육의 연속성	4	1.8	59	26.0	99	43.6	56	24.7	9	4.0	227	674	2,969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4	1.8	57	25.2	96	42.5	55	24.3	14	6.2	226	660	2,920

회도 계수를 떨어뜨리는 항목으로서 편차가 심한 항목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소속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 본 질문지의 24번 문항에 나타난 서울경기 지역의 근무자와 서울경기 이외 지역 근무자 두 집단 간에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만족도(표 5 참조)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Pearson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이제곱 값 17.788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근무지에 따라 거리로 인한 만족도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참여 프로그램 기간

참여 프로그램의 기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일의 일정이 158명으로 가장 참여 비율이 높았고 1일

(표 5) 소속기간의 소재지와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교차표

구 분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전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	
서울경기	빈도	4	40	62	22	5	133
	작성자 근무기관소재지의 %	3.0	30.1	46.6	16.5	3.8	100.0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의%	100.0	71.4	65.3	41.5	35.7	59.9
	전체 %	1.8	18.0	27.9	9.9	2.3	59.9
그외	빈도	0	16	33	31	9	89
	작성자 근무기관소재지의%	0.0	18.0	37.1	34.8	10.1	100.0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의%	0.0	28.6	34.7	58.5	64.3	40.1
	전체 %	0.0	7.2	14.9	14.0	4.1	40.1
전체	빈도	4	56	95	53	14	222
	작성자 근무기관소재지의%	1.8	25.2	42.8	23.9	6.3	100.0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1.8	25.2	42.8	23.9	6.3	100.0

(표 6) 소속기간의 소재지와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교차분석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양쪽검정)
Pearson 카이제곱	17.788	4	.001
우도비	19.083	4	.001
선형 대 선형결합	15.814	1	.000
유효 케이스 수	222		

(표 7)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별 만족도

항목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		매우불만		합계		평균 점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수	
일주일 정도	6	7.6	37	46.8	32	40.5	4	5.1	0	0.0	79	282	3.570
2-3일	12	7.6	75	47.5	58	36.7	12	7.6	1	0.6	158	559	3.538
1-3개월 정도	1	4.3	11	47.8	7	30.4	4	17.4	0	0.0	23	78	3.391
6개월 이상	4	11.1	15	41.7	10	27.8	4	11.1	3	8.3	36	121	3.361
1일	6	5.8	33	31.7	43	41.3	15	14.4	7	6.7	104	328	3.154

일정이 104 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5점 척도로 교육 기간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일 교육 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15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1주일 일정(3.570점)과 2-3일 일정(3.538점)으로서 이 둘은 모두 3.5점 이상으로서 다소만족의 평가 결과를 보였다.

4.5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

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향후 계속교육의 활성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3개 항목 중 6개를 우선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고, 1순위 부터 6순위까지 1점씩의 가중치 차등을 두어 1순위가 6점, 6순위가 1점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심 높은 교육 주제의 선정이 1,397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

화(1,236점), 충분한 지휘 체계의 확립 (1,177 점), 교육의 지속성(1,061 점)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 역시 관심 높은 교육 주제 선정으로 전체 382명의 조사 대상자 중 137명(35.5%)이 이를 1순위로 채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충분한 지원 체계의 확립 72명(18.7%),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62명(16.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중 특히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지역별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순위부터 6순위 중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간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와 관련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방 소재 기관 사서들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소재 기관 사서들에 비해 불만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의 확대에 대한 결과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8)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종합 점수
관심 높은 교육 주제 선정	빈도	137	56	30	35	26	18	1,397
	%	35.5	14.5	7.8	9.1	6.8	4.9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빈도	62	72	51	57	54	21	1,236
	%	16.1	18.7	13.2	14.8	14.2	5.7	
충분한 지원체계의 확립	빈도	72	50	68	41	36	28	1,177
	%	18.7	13.0	17.6	10.7	9.4	7.6	
교육의 지속성	빈도	26	67	65	57	49	41	1,061
	%	6.7	17.4	16.8	14.8	12.9	11.1	
교육의 질 향상	빈도	21	41	46	54	59	41	836
	%	5.4	10.6	11.9	14.1	15.5	11.1	
교육수준의 다양화	빈도	15	38	34	42	41	40	664
	%	3.9	9.8	8.8	10.9	10.8	10.8	
교육수료 후 인사항 인센티브의 확대	빈도	16	15	20	25	19	34	398
	%	4.1	3.9	5.2	6.5	5.0	9.2	
정규교육의 확대	빈도	10	13	23	23	28	20	362
	%	2.6	3.4	6.0	6.0	7.3	5.4	
전담기구의 설치	빈도	14	16	14	20	18	25	341
	%	3.7	4.2	3.7	5.3	4.8	6.8	
온라인 교육의 확대	빈도	7	9	18	13	28	43	297
	%	1.8	2.3	4.7	3.4	7.3	11.7	
공신력 있는 수료증 발급	빈도	4	6	14	12	16	45	223
	%	1.0	1.6	3.6	3.1	4.2	12.2	
비정규교육의 확대	빈도	0	3	3	5	7	13	69
	%	0	0.8	0.8	1.3	1.8	3.5	
기타	빈도	2	0	0	0	0	0	12
	%	0.5	0.00	0.00	0.00	0.00	0.00	
합계	빈도	382	382	382	380	377	365	7,98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 지역보다는 지방의 온라인 교육 확대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소속 기관의 소재지에 따른
온라인 교육 선택 비율

구분	빈도	선택 빈도	선택비율 (%)
서울경기	203	52	25.6
그 외	173	62	35.8
합계	376	114	30.3

이 중 특히 온라인 강좌와 관련하여 서울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선호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순위부터 6순위 중에 온라인 강좌를 선택한 178개의 사례만을 선별하여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별 빈도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서울경기 지역의 온라인 강좌 선택 비율은 52.2%, 그 외 지역의 선택 비율은 59.5%로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서의 온라인 강좌 선택 비율이 다소 높긴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다음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4.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정보검색(4.366점),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4.352 점) 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교양(3.286 점), 사서직 이론, 역사, 원리, 윤리(3.016 점), 문헌정보학 기초이론(2.927점) 등은 모두 평균 점수가 3.5점미만으로 다소 불필요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다.

관심 주제 분야 중 전자저널과 라이선스, 가

상 디지털 참고봉사, 대학 리포지터리,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한 주제들은 근래 새롭게 부각된 관심 주제 분야로서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8 선호하는 계속교육 기간

가장 선호하는 계속교육 기간은 다음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주일이 37.8%, 2-3

(표 12) 선호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주제	매우필요		다소필요		보통		다소불필요		전혀불필요		종합		평균 점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수	
이용자교육	205	54.1	140	36.9	30	7.9	3	0.8	1	0.3	379	1.682	4.438
정보검색	178	47.2	164	43.5	31	8.2	3	0.8	1	0.3	377	1.646	4.366
전자저널, 라이선스 등	174	46.0	167	44.2	33	8.7	4	1.1	0	0.0	378	1.645	4.352
도서관기획및전략(경영,관리,인사등)	147	38.8	172	45.4	51	13.5	8	2.1	1	0.3	375	1.593	4.245
도서관 마케팅	133	35.0	190	50.0	52	13.7	4	1.1	1	0.3	373	1.590	4.209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146	38.9	180	48.0	45	12.0	3	0.8	1	0.3	379	1.592	4.203
주제별정보원 구축	133	35.7	190	50.9	46	12.3	3	0.8	1	0.3	380	1.570	4.184
도서관 관련법(저작권 등)	101	26.8	199	52.8	72	19.1	5	1.3	0	0.0	377	1.527	4.050
뉴미디어(전자자료 등)	92	24.3	215	56.9	65	17.2	5	1.3	1	0.3	378	1.526	4.037
도서관 평가(통계 등)	90	23.7	207	54.5	78	20.5	5	1.3	0	0.0	377	1.522	4.032
도서관 정책	105	27.9	191	50.7	70	18.6	10	2.7	1	0.3	380	1.520	4.005
장서개발과정	98	26.1	188	50.1	80	21.3	7	1.9	2	0.5	375	1.498	3.995
IT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	88	23.5	180	48.0	97	25.9	9	2.4	1	0.3	375	1.470	3.920
대학 리포지터리(dCollection)	69	18.3	198	52.4	103	27.2	8	2.1	0	0.0	375	1.462	3.883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구축	80	21.2	179	47.4	104	27.5	14	3.7	1	0.3	378	1.457	3.868
편목(KORMARC)	97	25.9	159	42.4	101	26.9	14	3.7	4	1.1	377	1.456	3.857
장서평가	76	20.2	184	48.8	104	27.6	13	3.4	0	0.0	378	1.454	3.854
자료보존	82	21.9	161	42.9	118	31.5	14	3.7	0	0.0	375	1.436	3.829
외국어	94	25.0	152	40.4	103	27.4	21	5.6	6	1.6	376	1.435	3.816
분류(KDC, DDC)	88	23.6	156	41.8	106	28.4	18	4.8	5	1.3	373	1.423	3.815
커뮤니케이션	70	18.7	174	46.5	109	29.1	17	4.5	4	1.1	374	1.411	3.773
상담(기초)	52	13.9	151	40.5	142	38.1	25	6.7	3	0.8	373	1.343	3.601
색인 및 초록 작성법	44	11.8	152	40.9	136	36.6	35	9.4	5	1.3	372	1.311	3.524
일반교양	27	7.2	121	32.4	168	44.9	48	12.8	10	2.7	374	1.229	3.286
사서직이론, 역사, 원리, 윤리	24	6.5	81	21.8	150	40.4	76	20.5	40	10.8	124	1.086	3.016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	18	4.8	82	22.0	154	41.4	78	21.0	40	10.8	371	1.076	2.927
기타	3	2.4	26	21.0	74	59.7	12	9.7	9	7.3	372	374	2.892

일이 2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일 기간에 대한 선호도는 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본 장의 1.6절에서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별 만족도 조사에서 일주일과 2-3일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1일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장혜란(1997)의 연구 결과에서 1주 정도의 단기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의 56.6%로 가장 높에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13) 선호하는 계속교육 기간

구분	빈도	비율 (%)
일주일	145	37.8
2-3일	97	25.3
1-3개월 단기코스	75	19.5
6개월 이상 장기코스	57	14.8
1일	10	2.6
합계	380	100.0

4.9 선호하는 계속교육 시간대

가장 선호하는 계속교육 시간대와 관련한 조사 결과 다음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중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온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19.1%로 두 번째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14) 선호하는 계속교육 시간대

시간대	비중	%
근무중	241	63.1
온라인	73	19.1
퇴근후	26	6.8
주말	18	4.7
휴가	12	3.1
기타	12	3.1
합계	382	100.0

4.10 계속교육의 효과

계속교육으로 인한 신상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235명 중 105명으로 44.3%의 비율을 보였다. 이 중 계속교육에 따른 신상 변화의 내용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계속교육의 효과

구분	빈도	%
업무추진능력 향상	62	59.6
자긍심향상	28	26.9
기타	6	5.8
동료간의 인식	5	4.8
인사상의 변화	3	2.9
합계	104	100.0

상기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교육에 따른 신상 변화의 내용으로 업무 추진 능력의 향상이 62명(5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신상의 변화는 자긍심 향상으로 28명(26.9%)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4.11 선호하는 계속교육 주관 기관

향후 대학도서관의 사서교육을 위한 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바, 다음의 표 16에서와 같이 새로운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도서관협회가 23.7%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최말희(2001)의 연구에서도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가 제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선호하는 계속교육 주관기관

구분	비중	비율 (%)
새로운 전담 기구	170	44.9
한국도서관협회	90	23.7
국립중앙도서관	56	14.8
문헌정보학관련학회	29	7.7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있는 대학의 학과	26	6.9
기타	8	2.1
합계	379	100.0

5. 결론 및 제언

2000년 이전까지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가 3년에 1회 정도의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4%가 1년에 1회 이상 평균 2.6 건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 중의 관외 교육 허용이나 교육비 지원 등 소속 기관의 지원도 전체의 60%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교육에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소속 기관의 지원이 향상된 이유는 계속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 능력이 향상되었고(59.6%) 자긍심이 향상되었다(26.9%)는 계속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사례 연구 및 국내 사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이라는 관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교육을 시행할 새로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박정아(1994)의 연구에서 대학도서관은 서지 분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경영 분야의 교육에 관심을 두는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관종별 관심 주제 분야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다른 관종에 비해 연속간행물 특히 근래 들어서는 전자저널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주제 분야별 전자 정보 자원 개발 그리고 주제 전문적인 참고봉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open access 저널 및 institutional repository 역시 근래 대학도서관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종별 특성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요망된다.

2. 계속교육의 형태로는 단기 연수 혹은 강습의 형태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율은 학(협)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협)회 실시 세미나 및 워크샵에의 참여 기회가 단기 연수 혹은 강습회에의 참여 기회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기 연수 및 강습 과정의 확대 실시가 절실히 요망된다. 계속교육 기간은 일주일 혹은 2~3일의 기간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주제별 혹은 업무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1일 교육은 가장 지양해야 할 교육 기간이다.

3.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 장소까지

의 거리 문제가 참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온라인 교육 형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이미 상당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좌인 웹캐스트 형태와 언제든지 편리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가상 교육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4.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주제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 교육
- ② 정보검색
- ③ 전자저널 및 라이선스

- ④ 도서관 기획 및 전략
- ⑤ 도서관 마케팅
- ⑥ 가상 디지털 참고봉사

한편 일반교양이나 사서직 이론, 역사 원리, 윤리에 대한 교육, 혹은 문헌정보학 기초 이론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교육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실무와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 시행 계속교육 프로그램 주제인 대학교수진과의 협력(ACRL), 프리젠테이션 및 교수기법(ACRL), 지적자유(ALA), 재단 기획(ALA) 등 아직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 환경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대. 1990. 『사서직의 연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0.
- 박애경. 1995. 『수도권 사립 대학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박은정. 1996.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정아. 1994. 『사서의 계속교육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준식, 박은정. 1996. 대학도서관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도서관학논집』, 25: 569-593.

- 이선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진영. 1993. 사서직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관리. 『청주대학교 창립10주년 기념논문집』, 12-14.
- 임동빈. 2001.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51-77.
- 장혜란. 1997.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7-28.
- 최말희. 2001. 『정보화에 따른 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ALA STS Continuing Education Committee. [cited 2005.10.15]
 <<http://www.ala.org/ala/acrl/aboutacrl/acrlsections/sciencetech/stscommittees/stscontinuingeducation.htm>>.
- Casterleyn, Mary. 1981. Planning Library Training Programmes, London: Andre Deutsch.
- Cross, K. P. 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e Vinney, G. and P. Tegler. 1983. "Preparation for Academic Librarianship: a surve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3(3): 223-227.
- Konn, T. and N. Roberts, 1984. "Academic Librarians and Continuing Education: a Study of Personal Attitudes and Opinions," *Journal of Librarianship*, 6(4): 262-263.
- Larsen, Gitte. 2005.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rends and Perspectives in a Nordic Context. Paper for IFLA 2005 - SET & LTR Session 108, 16th August. [cited 2005.10.15]
 <<http://www.ifla.org/IV/ifla71/papers/143e-Larsen.pdf>>
- Maurer, T. J., & Tarulli, B. A. 1994. "Investigation of Perceived Environment, Perceived Outcome and Person Variables in Relationship to Voluntary Development Activity by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3-14.
- Morgan, Steve. 1996. "Developing Academic Library Skills for the Future." *Library Review*, 45(5): 41-53.
- Parson, L. C. 1988.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of Academic Librarians in Massachusetts: Practice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Denton.
- Stone, Elizabeth W. Patrick J. Ruth and Barbara Conroy. 1974.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к с і